

진단(診斷)

제1절 四診 : 望 - 환자의 精神, 顔色, 形態 및 배설물 관찰

聞 - 患者에게서 나는 소리와 냄새 관찰

問 - 病情發生과 發展과정 및 현재의 主要症狀와 治療狀況 問議

切 - 주로 脈과 신체 각 부위를 만져보는 방법

※ 四診合參 : 四診의 결과를 綜合하여 參考해야만 비로소 정확한 진단 처방 가능

1. 望診 - 患者의 “神色形態”를 관찰 : 人體內 臟腑에 疾病이 발생하면 반드시 體表上에 反映 “有諸內 必形于外”

┌ 神 → 人體 生理活動과 病理病變의 外的表現(形徵)

└ 色 → 五臟氣血의 運動의 外榮

└ 形 → 形體

└ 態 → 動態

1) 全身望診

①望神 : 得神(有神), 失神(無神), 假神(回光返照, 殘燈復明), - 失神者死 得神者生,

②望色 : 色은 臟腑氣血의 外在表現이다

光澤은 精氣의 盛衰, 病情의 輕重을 반영

- 素問五藏生成論 : 五臟之氣 故色見青如草茲者死 黃如枳實者死 黑如冥者死 赤如衄血者死 白如枯骨者死 此五色之見死也.....

- 面黃....皆不死也

③望形體와 望動態 : 形과 態 → 상호 밀접한 관계

- 肥人多濕, 肥人多痰, 瘦人多火, 瘦人多勞嗽

(素問 脈要精微論) 『頭者 精明之府 頭傾視深 精神將奪矣

背者 胸中之府 背曲肩隨 腑將壞矣

腰者 腎之府 轉搖不能 腎將憊矣

膝者 筋之府 屈伸不能 行則僂附 筋將憊矣

骨者 髓之府 不能久立 行則振掉 骨將憊矣』

※ 形態의 異常 → 臟腑의 病變을 豫知

2) 局部望診

(1)望頭面部 : 頭髮面目鼻耳口脣齒齦咽喉頸項등의 변화 관찰

①頭部 : 諸陽之會, 腦髓貯藏, 腎이 주관 - 小兒顛門이상 : 腦髓의 病이나 腎氣不足

②毛髮 : 毛髮은 血의 餘分, 腎의 機能이 표현됨 ==> 腎氣와 營血의 盛衰 반영

③얼굴 : 얼굴은 臟腑氣血의 外榮(足陽明胃經이 얼굴에 분포)

■面部 五色望診

靑	主寒證, 痛, 氣閉, 瘀血, 驚風
赤	熱證, 赤甚屬實熱, 微赤爲虛熱
黃	虛證, 濕
白	虛證, 寒證, 脫血, 脫氣
黑	腎虛(腎陽虛), 寒, 痛, 水飲, 瘀血

④目 : 眼神, 眼色, 外形, 動態 등의 변화 관찰 :

■五輪說:

肝	心	脾	肺	腎
黑睛-風輪	兩眦血絡-血輪	眼胞-肉輪	白睛-氣輪	瞳孔-水輪

⑤鼻 : 肺와 胃의 病變반영 : 肺의 外竅, 足陽明胃經이 鼻傍에서 始發

⑥齒와 齦 : 齒는 骨之餘로 腎이 주관, 齦은 陽明經이 분포

⑦口脣 : 脣은 脾의 外候로 手足陽明經이 口脣을 環繞 - 脾胃의 病變 반영

⑧耳 : 腎의 外候, 少陽經이 분포하고 耳者宗脈之所聚 - 특히 腎과 膽의 病變관찰 가능

⑨咽喉 : 咽은 飲食의 通路, 喉는 呼吸의 通路 (肺와 胃의 門戶)

咽喉로 肺胃腎의 病變 診察가능 - ex) 乳蛾 : 肺胃積熱에다 外邪感受

⑩頸項 : 頸項部는 手足三陽經이 循環하는 곳으로 食道와 기관지가 지나감

(2)四肢를 통한 望診

①胸腹背腰 : 藏象과 經絡의 관련성 근거로 關聯病證 판단

②四肢 : 手足의 皮膚色, 形態, 痛症

掌腕의 色澤 : ex) 색이 朱砂처럼 검붉으면 肝經의 血脈凝滯

指甲 : 指甲은 肝膽의 外候로 筋肉의 餘分

③皮膚 : 皮膚의 色澤과 形態를 관찰하여 内部臟腑의 病變을 파악, 皮膚는 肺와 內合

斑疹, 癰疹(尋麻疹), 風疹, 白痞, 水痘(急性傳染病), 癰(陽證) 疽(陰證) 疔 癤

④前陰과 後陰 : 肝經이 陰器에 絡, 陰囊은 腎에 속하며 精竅는 腎에 通, 尿竅는 방광에 通./ 陰囊의 病 (水疝, 癰疽, 狐疝), 下疳(尿道입구에 結硬), 陰挺(婦女的 陰中에 突出物) / 脫肛(氣虛下陷), 痔瘡

3)望舌 :

(1) 望舌의 診斷學的 根據

① 舌爲心之苗 : 心氣通於舌 心和則舌能知五味矣;

心主血脈하며 舌에는 脈絡이 豊富하여 心血이 舌에 上榮할뿐만 아니라

舌의 運動도 心神의 支配를 받기 때문에 心과 血의 關係는 根本과 枝葉의 關係

② 舌爲脾胃之外候 : 脾氣通於口 脾和則口能知五穀矣」

脾는 口로 開竅하고 舌은 口中에 居하여 味覺을 擔當하며 脾胃의 運化狀況이 舌에 反映되는데 이를 가리켜 「舌爲脾之外候」라 한다.

③ 舌은 經絡과 相互 聯關 : 手少陰心經의 別絡(經別)은 繫舌本, 足太陰脾經은 連舌本 散舌下, 足厥陰肝經은 絡舌本, 足少陰腎經은 循喉嚨 挾舌本, 足太陽膀胱經의 經筋은 舌本에 結.

※臟腑에 의한 舌의 分할 : 舌尖은 心肺, 舌中은 脾胃, 舌邊은 肝膽, 舌根은 腎

(2) 望舌의 診斷學的 의미

- 舌診의 주요내용 : 舌質과 舌苔(胃氣의 熏蒸)의 양방면으로 관찰
 - 意義 : 舌象은 氣血의 盛衰, 病情의 進退, 疾病의 寒熱, 病邪의 深淺을 객관적으로 반영
 - 舌質(舌體)을 통해 臟腑의 虛實, 氣血의 盛衰 ---> 血病
 - 舌苔를 통해 病位의 深淺, 疾病의 性質, 病邪의 進退, 胃氣의 存亡을 살핌-> 氣病
- 가. 正常 舌象 : 舌淡紅 苔薄白
- 나. 特徵的 舌象 : 舌質과 舌苔로 나누어 살펴 봄

(가) 舌質 : 人體臟腑 虛實과 氣血의 盛衰 반영 : 神色形態

- ①舌神 : 津液이 充足한 상태를 “榮”
- ②舌色 - 舌淡: 氣血不足, 舌紅: 熱證, 舌絳: 熱證極甚, 舌紫: 血瘀
- ③舌形 - 粗老舌(實證, 熱證), 細嫩舌(虛證, 寒證), 肥大舌(重舌-心脾熱盛과 濕熱內盛)
瘦薄舌(瘦癯舌-氣血兩虛), 裂紋舌(熱盛傷津, 氣血兩虛) 齒痕舌(虛證, 水濕內停)
芒刺舌(熱邪亢盛)
- ④舌態 - 強硬舌(熱入心包, 肝風內動, 言語蹇澀), 痿軟舌(氣血兩虛), 顫動舌(虛風內動)
歪斜舌(肝風), 吐弄舌(心脾熱盛證, 動風의 징조, 小兒智力 不良),
短縮舌(捲縮舌-危重한 상태)

(나) 舌苔:

- ①苔質 - 厚薄 : 病邪의 輕重, 病情의 進退
潤燥 : 津液의 盛衰變化(潤은 津液未傷, 水濕內停, 燥는 熱盛傷津)
膩腐 : 胃腸의 濕濁 :
膩苔 - 陽氣가 陰邪에 억압된 것, 잘 안 닦임. - 濕濁, 痰飲, 食積 등
腐苔 - 有餘한 陽氣가 胃中의 混濁한 氣를 熏蒸 - 食濁(痰濁), 食積 등
剝落 : 胃의 氣와 陰의 存亡 판단
有根과 無根 : 有根은 舌苔가 堅實, 胃氣가 있음, 實證, 熱證을 나타냄
無根은 胃氣손상, 虛證, 寒證 등
- ②苔色 - 黃苔 : 裏證, 熱證
白苔 : 表證, 寒證, 濕證,
灰苔 : 裏證(三陰의 寒證이나 熱證)
黑苔 : 危重한 裏證- 환자의 抵抗力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

※鏡面舌 : 舌苔가 剝落하고 舌面이 거울처럼 光絳한 것, 즉 剝苔
胃陰枯渴과 胃氣가 크게 손상된 表現임(形成機理는 ‘胃無發生之氣’)

- 4)望排泄物 - 諸病水液 澄澈清冷 皆屬於寒(素問至真要大論)
- 諸轉反戾 水液混濁 皆屬於熱
가래(痰涎)에 피가 섞인 경우는 肺熱이 絡脈을 손상한 경우(痰中帶血-肺陰虛에 多發)
嘔吐物이 噴射狀으로 나오며 頭痛, 發熱 동반하면 腦病人 경우가 많다

※ 望髮의 진단 의의 ㉠腎氣의 충족여부 판단 ㉡營血의 성쇠를 판단

2. 聞診 (聽覺, 嗅覺)

- 1) 聽聲音 : ①言語音聲의 變化 → 疾病의 內傷, 外傷, 寒熱, 虛實 등을 判別
 例) 言語低而微者 → 內傷으로 인한 虛症
 高音, 多語 或 譫語 → 熱症, 實症
 低音, 少語 或 鄭聲 → 寒症, 虛症 : “實則狂言譫語, 虛則鄭聲”
 ②呼吸 : 氣微 → 氣虛, 寒證, 氣粗 → 實證, 熱證
 哮(喉中에 哮鳴하는 소리), 喘(呼吸 短促急迫), 鼻鼾(코골다)
 ③咳嗽 : 有聲無痰 → 咳, 有痰無聲 → 嗽, 有聲有痰 → 咳嗽.
 ④嘔吐, 呃逆(역), 噯氣
 └ 呃逆(딸국질) : 噯, 吃逆(홀역), 打呃 - 胃氣가 上逆한 所致
 | 噯氣(噯氣, 트림) - 胃氣不和
 └ 嘔吐 : 有聲有物이 嘔, 無聲有物이 吐, 無物有聲은 乾嘔(=噯)
 ⑤嘆息(太息) : 氣鬱로 인해 多見
- 2) 聞氣臭 : ①病臭 - 例) 傷寒病 └ 初期 - 無病臭
 └ 傳入陽明腑症 → 病臭發生
 ②口臭와 痰涕 - 例) 胃中有熱 → 熱臭氣. 胃中有停食 → 酸臭氣
 鼻臭 → 鼻流出濁涕而有腥臭氣 → 鼻淵(腦漏), 消渴病
 ③二便 - 例) 大便酸臭 → 腸中有積熱者, 大便腥臭而溇薄者 → 多爲腸寒者
 ※小便臭而濁者 → 多爲濕熱下注膀胱.
 大便奇臭者 → 消化不良, 宿食停滯
 ※小便清長하고 量이 많은 것은 寒證, 小便短少하고 黃赤色은 熱證

3. 問診 : - 陳修園<醫學實在易>과 張景岳 <景岳全書>에도 비슷한 내용 : 十問歌

■十問 : 一問寒熱二問汗三問頭身四問便 五問飲食 六問胸七聾八渴俱當辨
 九問舊病 十問因 再兼服藥參機辨 婦人必問經期 遲速閉崩皆可見
 再添片語告兒科 天花麻疹全占驗

1問 寒熱	2問 汗	3問 頭身	4問 二便	5問 飲食口味	6問 胸腹	7問 耳目	8問 口渴, 睡眠	9問 舊病	10問 情緒, 習慣
-------	------	-------	-------	---------	-------	-------	-----------	-------	------------

1) 問 寒熱 : 病變의 性質 파악

- ①但寒不熱 : 裏虛寒證 - 畏寒, 蒼白, 倦臥, 少氣乏力, 舌質淡
 裏實寒證 - 外感寒邪에 感受되는 寒邪가 臟腑에 直中
 ②但熱不寒 :
 壯熱(傷寒의 陽明證, 溫病의 氣分證) - 面赤, 口渴, 喜冷飲, 多汗, 舌紅, 黃苔, 脈洪大
 潮熱 - 陽明潮熱(傷寒 陽明腑證=日晡潮熱) : 燥屎內結, 腹滿硬痛, 拒按, 舌芒刺
 濕溫潮熱(濕溫病, 脈濡 苔膩) : 身熱不揚
 陰虛潮熱(五心煩熱, 骨蒸潮熱, 虛陽偏亢으로 內熱, 顴紅, 盜汗, 口乾咽燥, 舌紅少津
 微熱(長期低熱, 溫病後期, 內傷氣虛나 陰虛, 小兒의 夏季熱病)
 氣虛發熱 : 氣虛로 발생하는 長期的인 微熱
 ③惡寒發熱 : 寒熱이 同時에 兼하여 발생
 ④寒熱往來 : 惡寒과 發熱이 交代로 발생 - 少陽病, 溫病, 瘧疾 등에서 관찰 가능

2) 問汗 : 體內的 津液이 化生하여 肌表로 外泄된 것이 汗液 - 體內陽氣가 陰液을 蒸發시킴

※ 汗의 주요기능 : 體溫을 調節하고 機體의 陽氣와 陰液의 平衡이 유지되게 함

①無汗 - 衛氣의 調節作用 喪失症(肺失宣發)

- 津液의 不足

②有汗 - 實熱證 : 面赤, 口渴冷飲 同伴

亡陽陰竭證 : 冷汗淋漓, 汗出이 油脂狀 = 脫汗, 絶汗

㉠自汗 - 活動後 甚 : 氣虛나 陽虛

㉡盜汗 - 잠을 자면서 땀을 흘리고 깨면 땀이 그침 - 陰虛

3) 問頭身

①問疼痛 : 實證 - 通하지 않아 痛症이 誘發되는 것

虛證 - 營養供給을 못 받아 痛症이 있는 것

㉠ 疼痛의 性質에 의한 분류

脹痛 : 臌脹證, 寒의 凝結로 인한 胃脘痛, 肝氣鬱結의 胸脇痛, 肝陽이 솟구쳐 생긴 頭痛

刺痛 : 鍼으로 찌르는 듯함, 痛處固定 -- 瘀血證

絞痛 : 痛症이 매우 劇烈, 疼痛의 범위가 매우 크다

串痛 : 痛症部位가 游走, 經絡의 游走와 관련됨

掣痛(체통) : 痛處에 잡아 당기는 느낌,

筋脈失養이나 氣機不通이 원인, 대부분 肝과 관련됨

灼痛 : 痛症部位에서 燃燒하면서 타는 듯한 느낌

冷痛 : 寒邪가 經脈을 凝滯

重痛 : 疼痛部位가 沈重한 느낌 - 濕邪로 인해 氣機가 막혀 발생

空痛 : 精血이 부족해서 발생

隱痛 : 氣血不足, 陽氣虛弱으로 經脈氣血 運行이 澁滯 - 은은하면서 면면히 이어지는 통증

㉡ 痛症部位

頭痛 : 外感頭痛 - 風寒頭痛, 風熱頭痛, 風濕頭痛(首如裹)

內傷頭痛 - 氣虛頭痛(隱隱, 過勞後 甚), 血虛頭痛(眩暈, 面白),

腎虛頭痛(腦髓空虛, 腰膝痠軟), 脾虛頭痛(自汗, 便溏)

血瘀頭痛(刺痛), 痰濁頭痛(嘔吐, 眩暈), 食積頭痛(惡心嘔吐, 心下痞悶)

肝火上炎에 의한 頭痛(脹痛, 口苦, 咽燥),

經絡分布 - 頭項痛(太陽經病), 前額痛(陽明經病), 前頭痛(太陰經病),

頭側部痛(少陽經病), 頭頂痛(厥陰經病),

少陰經病(頭痛이 齒에까지 이르러 痛症)

胸痛 : 心肺

脇痛 : 肝膽이 있고 肝膽經脈이 분포

胃脘痛 : 上脘(噴門부위), 中脘, 下脘(幽門) ; 灼痛하고 嘈雜症(胃陰虛)

腹痛 : 大腹(배꼽 위), 中腹, 小腹(배꼽이하), 少腹(小腹兩側 肝經이 지나는 곳)

腰痛 : 腰爲腎之府

背痛 : 背部 中間이 脊骨, 督脈이 순행하고 양측으로 膀胱經이 지나감

四肢痛 : 風寒濕熱痺

全身痛 : 外感이나 氣血虛로 인한 經脈 不通

㉔ 周身の 기타 불편한 증상을 묻는다

眩暈 : 清陽不升, 風火上擾, 腦部失養

目眩(目澁, 視力減退) : 肝藏血, 腎藏精하여 精血이 目을 滋養

肝陽上亢(面赤동반), 肝火上炎(目赤), 肝腎虧虛(視力減退)

耳痛, 耳鳴, 重聽, 耳聾 : 耳는 腎이 主管, 手足少陽經脈이 耳中에 모임

腎, 膽, 三焦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음

胸悶(胸痞, 胸滿) : 胸部에 滿悶不舒의 감각이 있는 것

心悸, 怔忡 : 心悸는 대부분 自發的, 驚悸는 대부분 外因의 所致

怔忡은 心悸와 驚悸가 進一步 發展된 것

腹脹 : 腹部飽脹, 滿悶하여 손에 잡힐 듯 하거나 혹은 腹部가 增大

氣機不暢이 가장 중요한 病機

疳積 : 小兒가 腹大, 얼굴이 黃色, 몸이 마르고 밥맛이 없는 증상 동반

麻木 : 知覺이 약해지고 소실되는 증상

주요한 病機는 經脈에 氣血의 營養을 받지 못하여 발생

4) 問 口渴과 飲水 : 飲食의 消化吸收는 脾胃, 肝膽, 大腸, 小腸, 三焦의 功能활동과 밀접

體內的 津液이 體外로 땀으로 배설되면 口안의 津液이 감소하여 口渴을 느낌

- 원인 : ㉔ 津液不足

㉔ 津液의 輸布 障礙 - 渴不多飲(津液不足이 微微하거나 輸布에 障礙)

※ 蓄水證 : 脈浮, 小便不利, 小腹脹滿, 물을 마시면 吐

痰飲證 : 水入即吐, 頭暈, 目眩, 胃腸에 물 흐르는 소리가 남

5) 問 飲食과 口味

가. 飲食 : 胃主受納, 脾主運化에 의하여 소화 - 脾胃機能의 주요한 標識

나. 口味 : 口中 酸苦甘辛鹹의 異常感覺

※ 口苦(熱盛, 肝膽의 火), 口鹹(寒盛), 口酸(오래된 飲食, 肝胃蘊熱, 傷食), 口澀(煩燥),

口淡(虛症), 口甘(疸 - 脾胃濕熱), 口臭(勞鬱, 胃腸에 熱, 脾胃濕熱, 口腔 자체 病變)

6) 問 二便

가. 問大便 : 大便排泄은 직접적으로 大腸이 주관, 동시에 脾胃의 腐熟運行, 肝膽의 疏泄, 肺津의 司布, 腎陽의 溫煦등과 밀접

① 배변 횟수의 異常

便秘 : 大便이 秘結되어 마르고 단단하여 짐

瀉瀉(便瀉, 泄瀉) : 예) 五更泄(腎泄, 晨泄) - 腎陽虛(命門火衰)

③ 排便感覺의 異常 : 肛門灼熱(濕熱性), 排便不爽, 裏急後重(痢疾),

滑泄失禁(脾陽虛, 腎陽虛), 肛門氣墜(中氣下陷)

나. 問 小便 : 小便排泄은 직접 膀胱이 主管,

腎藏의 氣化, 脾의 轉輸, 肺의 宣肅, 三焦의 決瀆과 밀접

① 尿量異常 : 尿量增多(예, 腎陽虛衰로 開多闔少)

尿量減少 - 浮腫, 水腫 (腎陽虛와 관련됨)

②排尿回數異常：小便頻數(ex. 濕熱下注膀胱)

③排尿異常：尿痛(淋病, 濕熱下注膀胱), 癃閉(陽虛水泛), 餘瀝不盡(腎氣虛)
小便失禁(尿失禁), 遺尿(睡眠中 小便이 나오는 것)

7)問 睡眠：失眠과嗜眠

8)問 婦女：“經帶胎產”이 중요함

月經의 形成：腎脾胃肝胞宮衝脈任脈

月經先期：血熱妄行과 氣虛不攝이 원인

月經後期：血寒, 血虛, 血瘀

月經先後不定期(月經衍期)：肝氣鬱結, 脾氣虛衰, 衝任脈失調, 瘀血阻滯
經行不止(崩漏)

經行腹痛：月經前 痛症은 實證, 月經後 痛症은 虛症

9)問 小兒：‘虎口三關指紋法’ - 風關, 氣關, 命關 활용

4. 切診：醫師가 손끝으로 환자의 일정한 부위에 觸摸按壓하여 질병의 변화와 체표의 반응을 이해하는 진단방법의 하나

1)脈診：疾病의 發病原因, 發展, 治療의 預後判斷의 根據가 된다.

(1)脈診의 임상적意義

『夫脈者 血之府也 長則氣治 短則氣病 數則煩心 大則病進』(素問, 脈要精微論)

『脈之盛衰 所以候氣之虛實 有餘不足』(靈樞, 逆順論)

===>脈象에 臟腑와 氣血의 盛衰와 邪氣와 正氣의 消長 상황이 반영됨

===>四診合參이 반드시 필요

(2)脈診하는 部位

①遍診法：內經의 三部九候法<素問 三部九候論> - 全身에서 診脈

診脈할 수 있는 動脈으로 머리(上), 손(中), 발(下) 三部가 있고 각각 天地人 三候로 나뉨

『人有三部 部有三候 以決死生 以處百病 以調虛實 以除邪疾』(素問, 三部九候論)

②三部診法：靈樞 禁服篇의 “寸口主中, 人迎主外”를 기초로 발전

※ 張仲景의 <傷寒論> → “三部診法”

‘人迎’脈(頸側動脈) 以候胃氣

‘寸口’脈(橈骨動脈) 以候臟腑, 十二經脈의 變化를 진찰

‘趺陽’脈(足背動脈- 胃經의 衝陽脈) 以候胃氣

③寸口診法：<內經>에 처음 보이고,

<難經>에서 상세해지고：內經의 三部九候를 氣口部位의 寸關尺으로

<脈經>에서 확정됨：寸關尺 세 부위와 臟腑의 배합원칙 제시

※ 內經의 脈診部位：1. 遍診法(①動脈法 ②三部九候法), 2. 人迎氣口脈法, 3. 氣口脈法

■ <難經>의 寸口 診法

寸口를 氣口 또는 脈口라고 부름,
 寸口를 다시 寸 關 尺의 三個部位로 나누고
 各 部位에서 浮 中 沈을 鑑別하여 三部九候脈이라 칭함
 卽「三部者 寸 關 尺也. 三候者 浮 中 沈也.」

■ 王叔和 <脈經>의 寸關尺과 臟腑배합원칙 (※外: 손가락 쪽 內: 팔꿈치 쪽)

	左 手						右 手					
	寸		關		尺		寸		關		尺	
	外	內	外	內	外	內	外	內	外	內	外	內
王熙<脈經>	心	小腸	肝	膽	腎	膀胱	肺	大腸	脾	胃	命門	膀胱 三焦
醫宗金鑑	膻中	心	肝	膽	小腸膀胱	腎	胸中	肺	胃	脾	大腸	腎

■ 寸口脈診의 原理

- 주요근거 : i. 肺朝百脈 - 寸口는 手太陰肺經으로 經脈이 모두 모이고, 五臟六腑氣血은 모두 肺에 모인다
 ii. 肺經은 中焦에서 시작하고 脾經과 더불어 太陰에 속함
 -->脾胃는 後天之本으로 各 臟腑 氣血 經絡의 根源임
- 意義 : 따라서 臟腑經脈의 氣血의 상태는 모두 寸口脈을 통해 반영됨으로 寸口脈象에 대한 切診으로써 各개 臟腑疾病의 表裏寒熱虛實 등의 병리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四診合參을 통한 診斷上 분석과 종합을 필요

(3)脈診時間 - 診脈常以平坦, 50搏動이상 관찰 필요

(4)指法 : 舉(浮取), 按(沈取), 尋(中取 - 舉하거나 按하며 자세히 살피는 것)

- 浮按法 : 六腑의 盛衰를 진찰
- 中按法 : 胃氣를 진찰
- 沈按法 : 五臟의 生死盈虧

※ 總按 : 세 손가락 同時사용,
 單按 : 한 손가락으로 눌러봄

(5) 정상적인 脈象 : 平脈

- ① 一息에 四~五 回 搏動
- ② 胃 神 根 의 有無 重視

胃 : 有胃氣則生 無胃氣則死, 脈象이 不沈不浮, 來去가 조용하고 均均
 神 : 得神者昌 失神者亡, 脈象이 緩和有力
 根 : 脈有根本 人有元氣 故知不死, 脈을 深取할 때도 힘이 있음

③脈合四時 : 春 夏 秋 冬 - 弦 洪(鉤) 毛(浮) 石(沈) - 規矩衡權(圓方輕重)

(6) 脈診時 注意事項

- 傷寒은 脈緊, 傷風은 脈緩, 熱病은 脈數, 中暑는 脈虛
- 陽證에 陽脈(浮大滑數), 陰證에 陰脈(沈細微澁)이 보이면 豫候가 順
 陽證에 陰脈은 凶, 陰證에 陽脈은 豫候가 吉.

※六要脈 : 浮(表證) 沈(裏證) 遲(寒證) 數(熱證) 滑(實證) 澁(虛證)

七表脈 : 浮, 芤, 滑, 實, 弦, 緊, 洪

八裏脈 : 沈, 微, 緩, 濡, 伏, 遲, 弱, 濡

七怪脈 : 魚翔, 蝦游, 釜沸, 解索, 雀啄, 屋漏, 彈石

※脈證相應 : 有餘한 病이나 暴病에 浮洪數實한 脈, 久病에 沈細微虛한 脈=>預後가 좋음 / 脈證不相應 : 逆症에 속하고 예후도 비교적 좋지 않음.

(7)病脈斗 主病 : 相似脈

- 浮脈 : 脈來浮於皮膚表面, 輕手按之指下則感知. 主病 - 外感表症, 虛陽浮越
 芤脈 : 脈形如蔥管, 浮而無力, 按之中空 主病 - 大失血症, 勿刺
 散脈 : 脈來浮而散亂, 無力不齊, 中接近於空虛, 重按即來去不明. 主病-心氣衰敗之症

- 沈脈 : 脈來沈行於筋骨間, 重按則顯明 輕手不明. 主病 - 邪氣內伏의 裏症
 伏脈 : 隱伏, 極重按之於透筋着骨, 指下始嘗其形 主病 - 病邪內伏深沈之症
 牢脈 : 脈來大弦實, 沈按始得 主病 - 陰寒이 쌓인病證(疝氣, 癥瘕, 痞塊)

- 遲脈 : 脈來緩慢 一息三至 主病 - 陰寒症, 冷積, 陽虛
 緩脈 : 脈象 - 脈來和緩調整其形, 不沈不浮, 非數非遲 → 主病 - 無病脈

- 數脈 : 脈來急速 一息六至 主病 - 熱症
 疾脈 - 一息 7-8至 主病-亢進된 陽을 제압할 수 없고 眞陰이 없어지려는 위급한 症候

- 虛脈 : 浮, 遲, 軟, 힘이 없는 맥의 總稱 主病 - 氣血 모두 虛
 短脈 : 來脈이 短, 澁(처음과 끝이 無에 가깝다.) 主病 - 氣鬱, 氣虛, 失精, 亡血

- 實脈 : 充實, 長大, 堅實 去來가 모두 盛 主病 - 邪盛症, 實證
 長脈 : 來脈이 長, 寸關尺을 초과함 主病 - 有餘之象, 實證, 亨 健康

- 滑脈 : 脈形往來流利圓滑, 無病脈(妊娠), 主病 - 痰飲, 食積, 實熱, 妊娠期
 動脈 : 見於關上爲動脈. 其形如豆隆然高起 主病 - 驚恐, 痛甚症

- 澁脈 : 脈形澁, 亂, 대나무를 칼로 가볍게 긁어 놓은 형상 主病- 血少, 精傷者, 氣滯, 血瘀

- 細脈 : 脈來細直而軟, 往來如蠶絲 細하며 힘있으면 濕病, 힘없으면 勞傷, 虛損, 氣血兩虛
 濡脈 : 脈來浮而細柔. 輕取即得 重取即沒 主病 - 氣血不足, 濕症
 微脈 : 脈來不明顯 脈細而柔. 似有似無. 主病 - 亡陽症(임종직전)
 弱脈 : 脈來沈遲細少, 按之如欲絕, 略舉手即無 主病 - 氣血兩虛

- 洪脈 : 脈來가 盛大(脈이 끝날때 약간 衰) 主病 - 陽熱이 매우 亢盛

- 弦脈 : 脈來如按琴線 主病 - 肝膽病, 氣滯疼痛, 痰飲, 瘧疾
 緊脈 : 脈來緊張有力 主病 - 寒症, 痛症이 심할 때
 革脈 : 脈來大而弦急, 浮取即得, 按之即空, 如按鼓皮, 外強中虛 主病 - 出血, 失精

- 代脈 : 遲中一止, 규칙적, 歇止하는 시간이 길다. 心臟疾患(건너 뛰는 脈)
 促脈 : 脈急數時一止, 불규칙적 間歇 主病 - 陽盛
 結脈 : 遲中一止, 불규칙적 間歇 主病 - 陰盛

●脈學上 가장 特徵있는 책으로 獨取寸口法을 주장하였고 遍診法을 새로이 해석함으로써
獨取寸口法의 근거를 마련한 책 難經

2) 觸診(按診) : 體表와 病變부위를 觸摸 按壓하여 질병의 부위와 성질을 探索

(1)皮膚觸診 - 皮膚의 寒熱, 潤燥, 腫脹, 瘡瘍을 관찰

潤燥(皮膚甲錯은 瘀血), 腫脹(氣腫, 水腫)

(2)四肢觸診 - 진단의 근거: 四肢者 諸陽之本也 陽盛則四肢實(素問陽明脈解)

四肢觸診의 의의 : 手足의 冷暖으로 질병의 寒熱과 陽氣의 존재 여부를 진단

- 手足俱冷 - 陰寒, 亡陽 또는 熱邪內閉

- 內傷及勞役, 飢飽不節 - 手心熱盛

- 外感風寒 - 手背熱盛

(小兒) - 小兒가 高熱이면서 手指尖冷 - 驚厥

- 中指獨冷 - 主外感風寒

(3)胸部觸診 - 胸者五臟六腑之宮城, 心の 拍動여부

<故人> 胸部 - 五臟六腑之宮城, 營衛氣血의 發源地

※ 虛里穴 : 左側 乳頭下 4-5번 肋骨處의 心尖 搏動處

→ 胃之大絡, 人以胃氣爲本, 宗氣亦以胃氣爲源

例)1.按之應手 動而不緊 緩而不急 → 宗氣積於胸中(無病之證)

2.其動微而不見 → 宗氣不及

3.高動而應衣 → 太過(宗氣外泄之狀)

(4)腹部觸診 - 喜按(寒痛) 拒按(熱痛), 癥과 積(實邪結), 瘕와 聚(氣滯의 所致)

ex. 結胸(心下가 그득하고 痛症), 痞氣(心下가 그득하나 아프지는 않음), 少腹痛(瘀血)

- 積聚 : ㄱ 癥 積 → 痛有定處, 按之有形而不移

ㄴ 瘕 聚 → 痛無定處, 聚散不定

(5)俞穴按診(按五輸穴) - 臟腑의 病變이 經絡聯系를 통하여 相應하는 俞穴에 반응이 출현

- 壓痛點 또는 背俞穴 - 膀胱經의 脊柱兩側傍 一寸五分 ex. 肝病 ->肝俞, 期門穴